

영국 차 시장 보고서

2011. 7

1. 시장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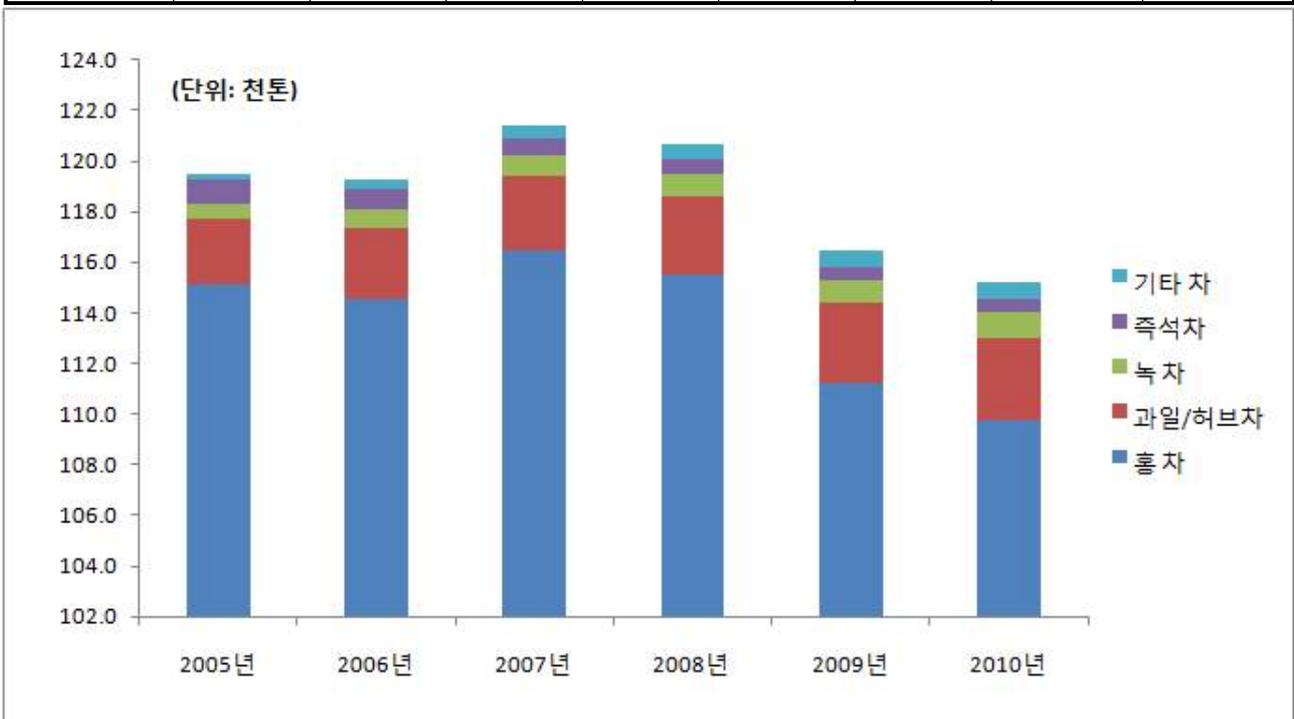
■ 차 종류별 시장규모

- 2010년 영국의 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1.3% 가 감소한 11만 톤을 약간 넘는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
- 2005년 이후 최근 6년간의 시장규모 동향을 살펴보면, 전반적으로 시장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
- 최근 6년 중 2007년에 최대치인 12.1만 톤이 판매되었으나 이후 급속하게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2008-09년에는 12.0만 톤에서 11.6만 톤으로 약 3.4%가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는 11.5만 톤으로 떨어짐
- 그 결과 6년간 영국의 차 시장규모는 4.7%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
- 그러나 차 종류별로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홍차와 즉석차를 제외한 과일/허브차, 녹차, 기타 차의 판매량은 최근 6년간 모두 두 자리 수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종류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
- 영국 차 시장의 대부분인 95% 가량을 차지하고 홍차의 판매량이 연평균 0.8%씩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차 시장의 규모 축소라는 결과를 가져옴
- 이와 같은 홍차의 판매량 감소는 English Breakfast, Earl Grey 등과 같은 대표적인 홍차 외에는 별다른 신제품이 출시되지 않고 있어 비교적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홍차가 지루한 제품으로 인지되고 있음
- 또한 영국에 미국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진출한 이후 영국 브랜드인 코스타(Costa), 이탈리아 브랜드인 (Cafe Nero) 등이 경쟁을 벌이면서 커피 문화가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됨
- 이와 같은 홍차의 대체품이라 할 수 있는 커피 문화 확산의 여파로 홍차의 소비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- 반면, 과일/허브차 및 녹차는 6년간 각각 26.3%, 67.8% 증가하며 시장 규모가 신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
- 이러한 과일/허브차 및 녹차 시장의 성장은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홍차와 비교하여 보다 건강에 좋은 차라는 이미지가 구축되고 보다 다양한 프리미엄 신제품이 출시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

< 2005-10년 차 종류별 시장규모 동향 (판매량 기준) >

(단위: 톤, %)

| 구분 | 2005년 | 2006년 | 2007년 | 2008년 | 2009년 | 2010년 | 2009-10년 성장률 | 2005-10년 성장률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홍 차 | 115,172.9 | 114,555.7 | 116,453.2 | 115,512.0 | 111,217.3 | 109,786.8 | -1.3 | -4.7 |
| 과일/허브차 | 2,571.6 | 2,810.1 | 2,993.5 | 3,122.9 | 3,153.6 | 3,249.0 | 3.0 | 26.3 |
| 녹 차 | 592.2 | 702.4 | 780.6 | 836.8 | 895.3 | 993.8 | 11.0 | 67.8 |
| 즉석차 | 909.1 | 851.1 | 665.9 | 599.3 | 547.2 | 503.4 | -8.0 | -44.6 |
| 기타 차 | 204.7 | 335.2 | 498.1 | 568.8 | 625.7 | 685.2 | 9.5 | 234.7 |
| 합 계 | 119,450.5 | 119,254.6 | 121,391.2 | 120,639.8 | 116,439.1 | 115,218.1 | -1.0 | -3.5 |



(자료: 유로모니터 2011)

< 영국의 주요 차 신제품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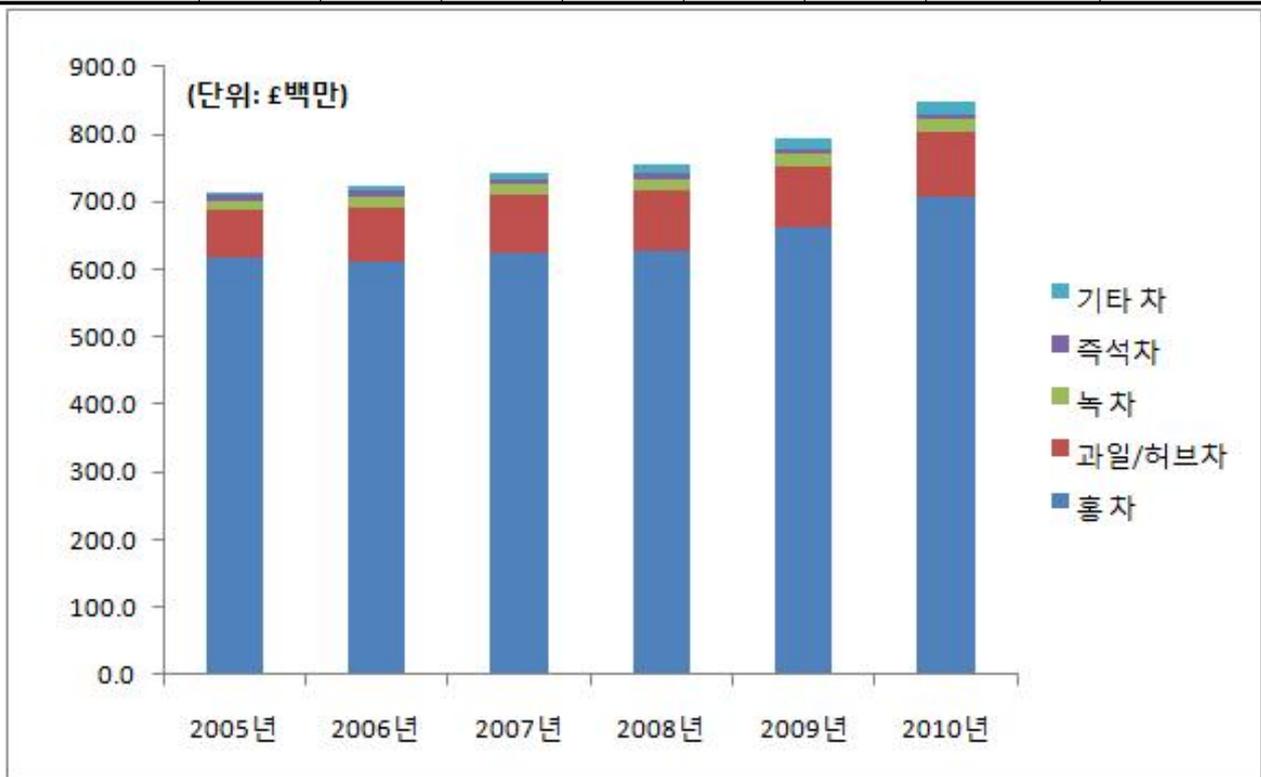


- 반면,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영국 차 시장규모는 2010년 8.5억 파운드, 한화 약 1.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
- 앞에서 영국에서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시장규모가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규모는 2006년을 제외하고 연평균 3.06%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-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인도와 케냐의 극심한 가뭄으로 세계 차 공급 규모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한데 따른 결과로 해석됨
- 이에 따라 시장규모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던 홍차의 경우,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, 2005-10년 동안 무려 14.5%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

< 2005-10년 차 종류별 시장규모 동향 (매출액 기준) >

(단위: 백만 파운드, %)

| 구분 | 2005년 | 2006년 | 2007년 | 2008년 | 2009년 | 2010년 | 2009-10년 | 2005-10년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홍 차 | 616.5 | 611.7 | 623.3 | 628.7 | 661.4 | 705.8 | 6.7 | 14.5 |
| 과일/허브차 | 72.9 | 80.7 | 85.6 | 88.0 | 90.9 | 96.7 | 6.4 | 32.6 |
| 녹 차 | 11.2 | 14.3 | 16.3 | 17.2 | 18.8 | 21.0 | 11.7 | 87.5 |
| 즉석차 | 11.4 | 10.4 | 9.0 | 7.9 | 7.1 | 6.4 | -9.9 | -43.9 |
| 기타 차 | 3.2 | 6.0 | 9.3 | 13.0 | 14.8 | 16.9 | 14.2 | 428.1 |
| 합 계 | 715.2 | 723.1 | 743.6 | 754.9 | 793.0 | 846.9 | 6.8 | 18.4 |



(자료: 유로모니터 2011)

-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규모를 봤을 때, 2005년 이후 차 종류 중 가장 크게 성장한 품목은 기타 차로 무려 428.1%가 증가함
- 기타 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루이보스 차 (Rooibos tea)로,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얻음
- 기타 차에 이어 녹차와 과일/허브차도 각각 87.5%, 32.6%의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그러나 차 종류 중에 즉석 차만이 유일하게 시장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, 소비자들이 즉석 차는 가공 또는 인공적인 제품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지하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남

■ 차 브랜드별 시장점유율

- 2010년 Unilever의 PG Tips와 Tata Tea사의 Tetley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2.3%와 19.8%로 영국 차 시장의 선두 업체로 조사됨
- 그러나 두 업체 모두 2007년 이후 시장점유율이 정체 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이는 PG Tips와 Tetley의 경우는 제품이 다양하지 않고 홍차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음
-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PG Tips의 경우는 매출액의 99%, Tetley는 94%가 홍차에서 발생하고 있어, 홍차 시장의 축소에 따라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
- 반대로 홍차보다는 과일/허브차, 다양한 맛을 조합한 녹차 제품 등을 활발하게 출시하고 있는 Twinings와 Clippers는 시장점유율이 증가 또는 유지를 하고 있으며 틈새시장을 겨냥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기타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기타 업체들의 경우 2007년에는 시장점유율이 10.3%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15%가 넘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
- 차 종류별 시장규모 결과 뿐 아니라 차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자료도 홍차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영국의 차 시장이 빠르게 과일/허브차, 녹차 등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

< 2007-10년 브랜드별 차 시장 점유율 >

(단위: %)

| 브랜드명 | 소유회사 | 이미지 | 2007 | 2008 | 2009 | 2010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PG Tips | Unilever Bestfoods UK |  | 23.1 | 22.8 | 23.5 | 22.3 |
| Tetley | Tata Tea |  | 21.5 | 21.8 | 21.1 | 19.8 |
| 기타 자사 라벨 | |  | 15.7 | 14.6 | 14.8 | 14.3 |
| Twinings | Twining & Co Ltd |  | 11.2 | 11.3 | 11.4 | 11.1 |
| Yorkshire | Betty&Taylors of Harrogate |  | 7.3 | 7.4 | 7.7 | 7.4 |
| Typhoo | Typhoo Tea |  | 5.7 | 5.5 | 5.0 | 4.5 |
| Clipper | Clipper Teas |  | 0.8 | 0.8 | 0.7 | 0.7 |
| Redbush tea | Redbush Tea |  | 0.5 | 0.6 | 0.6 | 0.7 |

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Pukka | Pukka Health |  | 0.6 | 0.6 | 0.7 | 0.6 |
| Teadirect | Cafedirect Ltd |  | 0.8 | 0.7 | 0.6 | 0.5 |
| Yogi | Yogi Tea Co |  | 0.5 | 0.5 | 0.5 | 0.5 |
| Health E Tea | Health E Tea | | 0.4 | 0.5 | 0.5 | 0.5 |
| Ideal Health | Ideal Health Group Ltd | | 0.3 | 0.3 | 0.4 | 0.3 |
| Lift | Typhoo Tea |  | 0.4 | 0.3 | 0.3 | 0.3 |
| DrStuarts | Only Natural Products Ltd |  | 0.2 | 0.2 | 0.2 | 0.2 |
| Brooke Bond | Global Tea & Commodities |  | 0.1 | 0.2 | 0.2 | 0.2 |
| Jacksons of Piccadilly | Jacksons of Piccadilly Ltd |  | 0.2 | 0.2 | 0.1 | 0.1 |
| Lyons | Tetley GB Ltd |  | 0.2 | 0.1 | 0.1 | 0.1 |
| London Fruit & Herb | Typhoo Tea Lt | | 0.2 | 0.1 | 0.1 | 0.1 |
| 기 타 | | | 10.3 | 11.3 | 11.4 | 15.7 |
| 합 계 | |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

(자료: 유로모니터 2011)

■ 제품 형태별 시장점유율

- 제품 형태별로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, 티백 형태의 제품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96.0%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
- 티백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대비 0.3%가 증가하였으나 다른 형태의 제품들은 모두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음
- 이는 영국 소비자들이 제품에서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, 소비하기 편리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제품들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

< 제품 형태별 시장점유율 >

(단위: %)

| 구 분 | 2009년 | 2010년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잎 차 (Loose tea) | 2.8 | 2.7 |
| 티백 (Teabags) | 95.7 | 96.0 |
| 즉석 차 (Instant tea) | 1.4 | 1.2 |
| 캡슐형 차 (Tea pods) | 0.1 | 0.1 |
| 합 계 | 100.0 | 100.0 |

(자료: 민텔 2011)

2. 유통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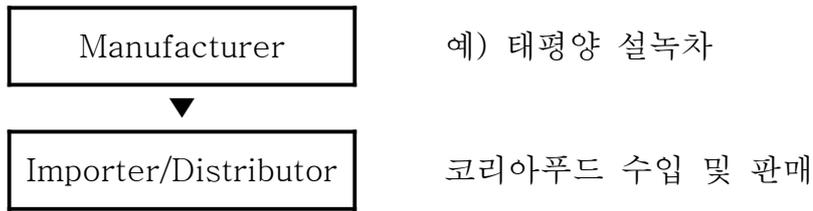
■ 차 제품의 유통채널

- 차 제품의 유통채널은 크게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off-trade와 호텔, 레스토랑, 카페 등을 포함하는 각종 케이터링 업체 및 자판기를 통한 on-trade로 구분할 수 있음
- 주요 시장조사기관에서 영국 내 유통채널별로 얼마만큼의 차가 판매되고 있는지 또는 유통채널별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자세한 통계치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
- 다만 유로모니터는 차 제품의 경우 커피만큼 많은 양이 on-trade를 통해 판매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이 경로로 판매된 차의 양은 약 9% 정도라고 추정함
- 그러나 이 수치는 2009년에 비해 1%가 증가한 것으로, 카페와 다른 형태의 on-trade 업체들이 증가하고 이 업체들이 커피와 더불어 녹차와 다양한 종류의 과일/허브차 및 기타 차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
- 자판기를 통해 판매된 경우는 0.5% 미만의 극소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의 맛과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영국 소비자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판매량이 전년대비 11%가 감소했다고 전함
- 반면, 2010년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이 전체 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%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함
-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차 유통채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약간의 감소한 것으로, 이는 경제침체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Lidl과 Aldi와 같은 디스카운터에서 차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임

■ 수입 제품의 유통경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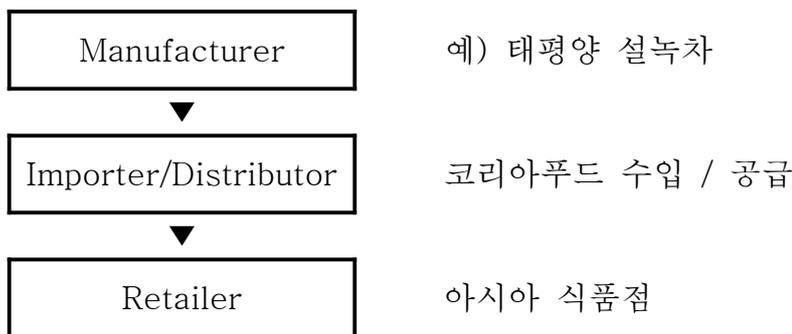
- 영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차의 유통경로는 몇 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치느냐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
- 가장 짧은 단계는 Wing Yip, Double Happiness, 코리아푸드와 같은 수입회사들이 자사 소유의 소매매장을 통해 바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임
- 이 유통경로는 수입회사가 소매매장을 가지고 소매업도 겸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통경로로 판매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됨

< 수입 차 제품 유통경로 1 >



- 두 번째 경우는 수입회사가 현지 유통업체 및 아시아 식품 소매점에 바로 공급하는 경우로 직접 수입을 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
- 수입 차 제품 중 가장 높은 비율이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유통 중일 것으로 판단됨

< 수입 차 제품 유통경로 2 >



■ 타수입산의 진출상황

- 타수입산은 대형 슈퍼마켓 체인과 같은 현지 주류 유통채널이 아닌 아시아 식품 전문 소매점 또는 일부 차로 특화된 점포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
- 또한 수입 원산지 별로 차 제품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
- 한국은 녹차와 더불어 유자차, 생강차, 쌍화차 등이 티백과 즉석 차 형태의 제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는 반면, 일본 제품들은 녹차와 우롱차를 중심으로 한 티백 제품이, 중국 제품들은 주로 녹차, 우롱차, 꽃잎차, 허브차 등으로 티백과 잎 차 (loose tea)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잎 차 제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

< 중국/일본산 주요 차 제품 >

| 구분 | 이미지 | 가격 및 특징 |
|----|---|---|
| 중국 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스민차 - 40g £ 0.60 |
| 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녹차 - 40g £ 0.60 |
| 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롱차 - 125g £ 1.85 |
| 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꽃잎차 - 100g £ 1.85 |
| 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허브차 - 100g £ 1.60 |
| 일본 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녹차 (잎차) - 200g £ 3.00 - 4.23 |
| 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녹차 티백 - 32g, 16개 들입 - £ 2.13 |
| 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롱차 티백 - 32g, 16개 들입 - £ 2.13 |

3. 소비자 동향

■ 차 종류별 제품 침투률

- 차 종류별로 성별, 연령, 사회적 지위와 같은 소비자 특징에 따라 어떻게 제품 침투률을 통해 어떤 특징을 가진 소비자들이 한국산 차 제품의 잠재 소비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
- 우선 차 종류별로 전체 침투률을 비교해 보면, 홍차의 제품 침투률은 78.3%에 달하고 있으나 과일/허브차 20.4%, 녹차는 11%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
- 또한 홍차는 다량 섭취자가 54%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소량 섭취자는 10% 미만으로 나타난 반면 과일/허브차는 소량 섭취자 9.0%, 다량 섭취자 3.7%로, 소량 섭취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홍차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음용률이 모두 78% 전후로 비슷한 수준이나 녹차는 여자가 남자보다 5% 가량이, 과일/허브차는 무려 10% 가량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

< 차 종류별 제품 침투률 >

| 구 분 | 홍 차 | | | | 녹 차 | 과일/허브차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| 총 섭취자 | 다량 섭취자 | 중간 섭취자 | 소량 섭취자 | 총 섭취자 | 총 섭취자 | 다량 섭취자 | 중간 섭취자 | 소량 섭취자 |
| 합 계 | 78.3 | 54.0 | 17.0 | 7.3 | 11.0 | 20.4 | 3.7 | 7.7 | 9.0 |
| 성 별 | | | | | | | | | |
| 남자 | 77.9 | 54.0 | 17.0 | 6.9 | 8.7 | 15.0 | 2.0 | 5.8 | 7.2 |
| 여자 | 78.7 | 54.0 | 17.0 | 7.7 | 13.0 | 25.8 | 5.3 | 9.6 | 11.0 |
| 연 령 | | | | | | | | | |
| 15-24세 | 68 | 31.0 | 23.0 | 14 | 9.9 | 18.1 | 1.5 | 5.7 | 11.0 |
| 25-34세 | 77.4 | 45.0 | 23.0 | 9.4 | 15.0 | 26.4 | 5.1 | 9.2 | 12.0 |
| 35-44세 | 77.6 | 53.0 | 17.0 | 7.6 | 11.0 | 22.5 | 3.8 | 7.7 | 11.0 |
| 45-54세 | 81.4 | 61.0 | 16.0 | 4.4 | 11.0 | 22.9 | 5.3 | 8.8 | 8.8 |
| 55-64세 | 82.9 | 65.0 | 12.0 | 5.9 | 11.0 | 21.1 | 4.7 | 9.1 | 7.3 |
| 65세 이상 | 85.4 | 69.0 | 13.0 | 3.4 | 7.9 | 12.8 | 2.1 | 6.5 | 4.2 |
| 사회계층 | | | | | | | | | |
| 중상위층 이상 | 79.2 | 54.0 | 16.0 | 9.2 | 14.0 | 29.4 | 4.4 | 11.0 | 14.0 |
| 중산층 | 81.4 | 54.0 | 20.0 | 7.4 | 16.0 | 28.1 | 5.1 | 11.0 | 12.0 |
| 중하위층 | 76.5 | 52.0 | 17.0 | 7.5 | 12.0 | 22.5 | 4.6 | 8.0 | 9.8 |
| 숙련 노동계층 | 80.8 | 59.0 | 16.0 | 5.8 | 7.8 | 16.5 | 2.3 | 6.3 | 7.9 |
| 노동계층 | 77.1 | 52.0 | 17.0 | 8.1 | 6.2 | 12.2 | 2.1 | 4.7 | 5.3 |
| 최저층 | 81.9 | 58.0 | 16.0 | 7.9 | 5.3 | 11.7 | 2.7 | 4.8 | 4.2 |

(자료: 키노트 200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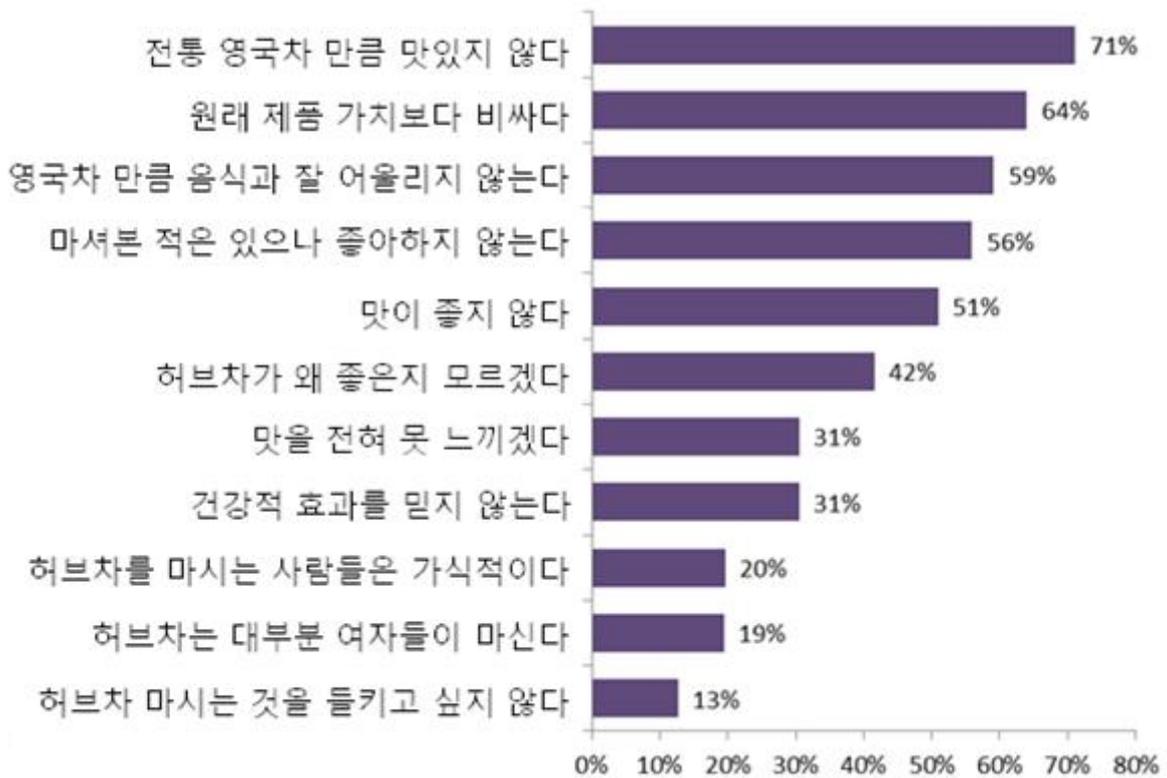
- 연령을 기준으로 차 유형별 소비자들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, 홍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섭취률이 높아지고 있는데, 특히 다량 섭취자 군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간 및 소량 섭취자 군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섭취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
- 반면, 녹차와 과일/허브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섭취률이 낮아져 25-34세 연령대에서는 녹차와 과일/허브차 섭취률이 각각 15%와 26.4%로 가장 높았으나 65세 이상에서는 7.9%, 12.8%로 가장 섭취률이 낮게 나타남
- 연령대가 높은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소비자들에게는 녹차와 과일/허브차의 수용도가 매우 낮음을 유추할 수 있음
- 사회계층에서는 또 다른 성향이 나타나고 있음
- 홍차의 경우 중상위층 이상 계층, 중하위층, 노동계층에서 섭취률이 낮게 나타나고 중산층과 숙련 노동계층에서 섭취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반면, 녹차는 중상위층, 중산층, 중하위층에서 10%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섭취률이, 과일/허브차도 이 상위 3개 계층에서 20%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섭취률 결과가 도출됨
- 따라서 녹차와 과일/허브차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경제적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타겟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함

■ 과일/허브차 진입 장벽

- 민텔은 16세 이상 433명의 지난 6개월간 영국 전통차를 마신 적은 있으나 과일/허브차는 마신적이 없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질문을 통해 과일/허브차의 시장 진입 장벽이 무엇인지 파악함
- 위에서 살펴봤듯이 과일/허브차는 녹차의 타겟 또는 잠재 소비자들과 유사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영국 현지 소비자들이 왜 녹차를 기피 또는 구입을 주저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음
- 과일/허브차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은 현지 소비자들이 이 제품들이 기존 영국의 전통 차만큼 맛있지 않다(71%)고 느끼는데 있는 것으로 조사됨
- 다음으로 과일/허브차가 원래 제품의 가치보다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(64%)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, 영국 차 만큼 음식과 어울리지 않는다 (59%), 마셔본 적은 있으나 싫었다 (56%), 맛이 좋지 않다 (51%) 순으로 나타남

- 50%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사항들은 대부분 제품의 특징을 전통 영국차와 비교함으로써 제품의 전환을 거부한 경우로, 영국의 차 문화를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음
- 따라서 소비자들의 보수적인 성향이 과일/허브차, 녹차의 구매 또는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
- 반면, 허브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가식적이다 (20%), 허브차는 대부분 여자들이 마신다 (19%), 허브차 마시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다 (13%) 등 과일/허브차의 섭취와 소비자 자신의 셀프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
- 이와 같은 현지 소비자들의 제품 이미지에 대한 편견은 광고 또는 홍보를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< 과일/허브차 진입 장벽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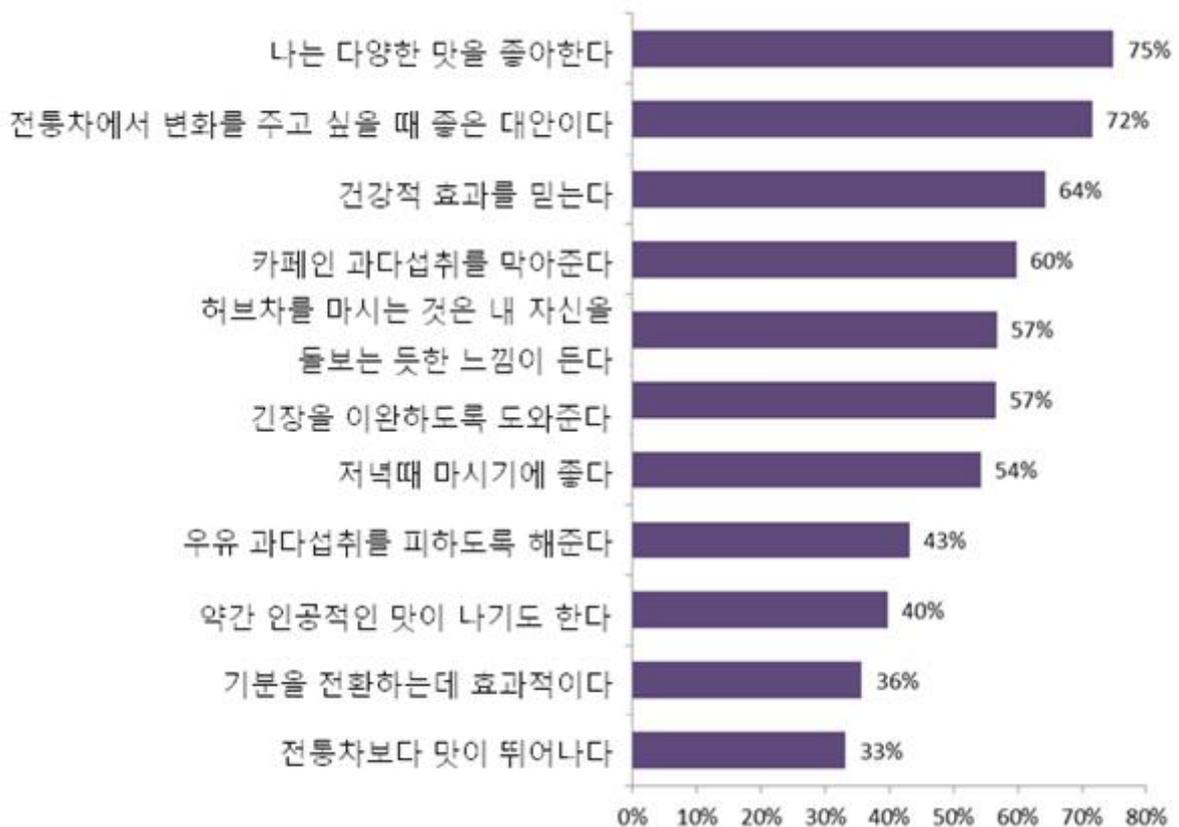


(자료: 민텔 2011)

■ 과일/허브차 섭취 이유

- 현재 과일/허브차를 마시는 소비자들의 섭취 이유를 살펴보면, 다양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일/허브차를 마신다는 응답이 75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다음으로 전통차에서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마실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72%, 건강적 효과를 믿기 때문에 64%, 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아준다 60%, 허브차를 마시는 것은 내 자신을 돌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57%, 긴장을 이완하도록 도와준다 57%, 저녁 때 마시기에 좋다 54% 순으로 조사됨
- 과일/허브차를 마시는 이유를 바탕으로 잠재 타겟 소비자의 특성을 분류해 보면 크게 새로운 맛을 원하는 소비자와 건강에 좋은 차를 원하는 소비자로 구분할 수 있음
- 이와 같은 소비자 성향에 따라 현재 영국의 과일/허브차 및 녹차 회사들은 2가지 이상의 과일 또는 허브를 섞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

< 과일/허브차를 마시는 이유 >



(자료: 민텔 2011)

- 또한 허브 차의 경우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, 특히 정신적 긴장 이완 및 숙면과 관련된 특징을 내세워 TV 광고를 하고 있음
- 반면, 과일/허브차의 맛이 전통 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마신다는 응답은 33%로 가장 낮게 나타나 영국 소비자들이 녹차를 마시는 것은 맛 때문이 아닌 새로움, 건강을 이유로 마신다는 것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음

4. 수입동향

■ 전체 수입규모 동향

- 2010년 영국의 차 수입규모는 수입액 기준 4억 2천만 달러, 한화 약 4,412억 원, 수입량 기준 15만 톤으로, 전년 대비 각각 14.1%, 1.3%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

< 2008-10년 전체 수입규모 동향 >

(단위: 천 달러, 천 kg, %)

| 국가명 | 2008 | | 2009 | | 2010 | | 2009-10년 성장률 | | 2008-10년 성장률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
| | 수입액 | 수입량 | 수입액 | 수입량 | 수입액 | 수입량 | 수입액 | 수입량 | 수입액 | 수입량 |
| 합 계 | 364,065 | 157,592 | 369,016 | 147,864 | 420,880 | 149,823 | 14.1 | 1.3 | 15.6 | -4.9 |
| 케냐 | 175,315 | 78,248 | 199,842 | 81,935 | 210,943 | 78,750 | 5.6 | -3.9 | 20.3 | 0.6 |
| 인도 | 53,567 | 21,326 | 52,811 | 19,164 | 64,240 | 20,981 | 21.6 | 9.5 | 19.9 | -1.6 |
| 중국 | 22,025 | 7,695 | 20,873 | 6,881 | 26,739 | 8,025 | 28.1 | 16.6 | 21.4 | 4.3 |
| 인도네시아 | 17,822 | 9,794 | 21,723 | 10,512 | 23,551 | 9,996 | 8.4 | -4.9 | 32.1 | 2.1 |
| 탄자니아 | 15,090 | 6,143 | 8,655 | 3,464 | 12,311 | 4,381 | 42.2 | 26.5 | -18.4 | -28.7 |
| 스리랑카 | 9,672 | 2,354 | 9,661 | 2,113 | 11,885 | 2,298 | 23.0 | 8.8 | 22.9 | -2.4 |
| 말라위 | 9,830 | 6,040 | 6,162 | 3,111 | 9,550 | 4,865 | 55.0 | 56.4 | -2.8 | -19.5 |
| 폴란드 | 3,322 | 419 | 3,646 | 583 | 7,685 | 1,550 | 110.8 | 165.9 | 131.3 | 269.9 |
| 남아프리카 공화국 | 13,544 | 6,451 | 8,495 | 3,944 | 6,805 | 2,919 | -19.9 | -26.0 | -49.8 | -54.8 |
| 르완다 | 1,916 | 707 | 5,516 | 1,879 | 6,263 | 1,910 | 13.5 | 1.6 | 226.9 | 170.2 |
| 독일 | 7,987 | 5,235 | 5,908 | 2,768 | 5,971 | 1,329 | 1.1 | -52.0 | -25.2 | -74.6 |
| 아일랜드 | 2,972 | 548 | 1,841 | 1,205 | 5,787 | 1,008 | 214.3 | -16.3 | 94.7 | 83.9 |
| 아랍 에미레이트 | 5,042 | 1,854 | 3,986 | 1,582 | 4,802 | 1,592 | 20.5 | 0.6 | -4.8 | -14.1 |
| 미국 | 4,120 | 593 | 3,230 | 381 | 4,184 | 332 | 29.5 | -12.9 | 1.6 | -44.0 |
| 스위스 | 2,537 | 1,047 | 2,063 | 865 | 3,125 | 1,327 | 51.5 | 53.4 | 23.2 | 26.7 |
| 짐바브웨 | 581 | 468 | 1,460 | 894 | 2,723 | 1,625 | 86.5 | 81.8 | 368.7 | 247.2 |
| 아르헨티나 | 5,718 | 4,868 | 3,209 | 3,566 | 2,718 | 2,945 | -15.3 | -17.4 | -52.5 | -39.5 |
| 네덜란드 | 2,062 | 236 | 1,213 | 119 | 1,740 | 438 | 43.4 | 268.1 | -15.6 | 85.6 |
| 베트남 | 1,258 | 803 | 541 | 396 | 1,461 | 816 | 170.1 | 106.1 | 16.1 | 1.6 |
| 프랑스 | 1,030 | 205 | 1,154 | 287 | 1,008 | 342 | -12.7 | 19.2 | -2.1 | 66.8 |
| 일본 (21) | 626 | 55 | 748 | 109 | 833 | 54 | 11.4 | -50.5 | 33.1 | -1.8 |
| 한국 (50) | 149 | 13 | 132 | 25 | 29 | 2 | -78.0 | -92.0 | -80.5 | -84.6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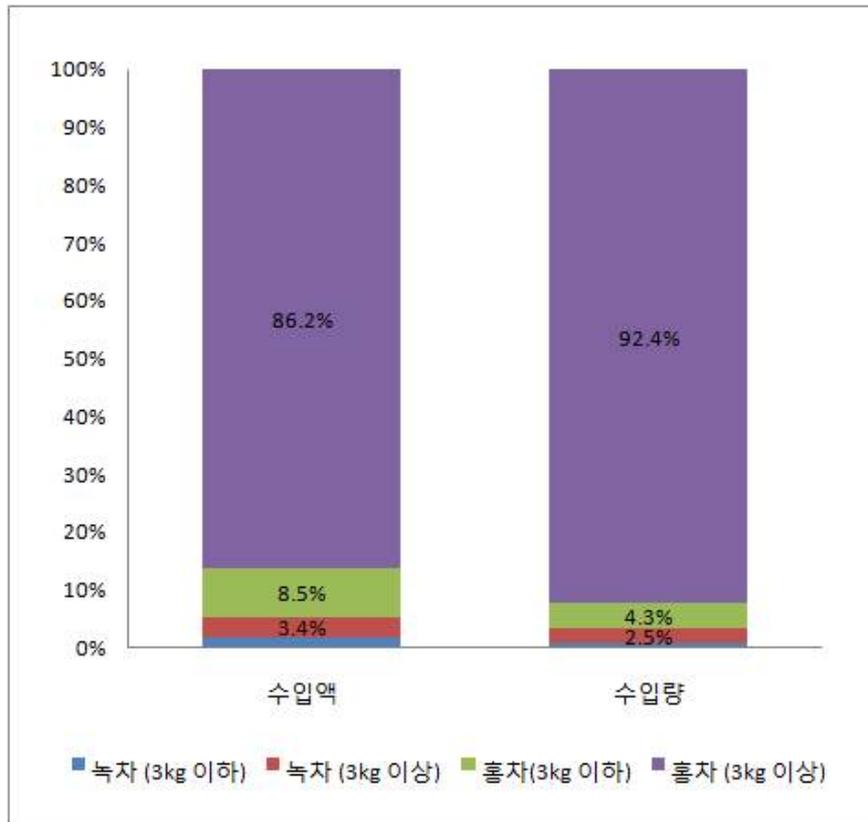
주: HS 코드 0902로 검색한 결과임
(자료: GTA)

- 영국이 가장 많은 차를 수입한 원산지는 케냐로, 케냐에서 연간 전체 수입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2억 1천만 달러, 7.9만 톤 규모의 차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
- 케냐에 이어 인도, 중국, 인도네시아, 탄자니아가 각각 수입규모 2-5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21위, 한국은 50위를 기록함
-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의 수입규모 동향을 보면 지속적으로 수입액은 상승하고 있으나 수입량은 2008-09년에 다소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2009-10년에 소폭 상승, 2008-10년에 -4.9%의 성장률을 보임
- 수입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은 증가한 것은 수입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암시하고 있음
- 수입규모 1-2위인 케냐와 인도의 동향을 살펴보면 두 국가 모두 최근에 수입량은 감소하는 반면 수입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한 것으로 나타남
- 케냐산 차의 경우, 2009-10년에 수입량은 3.9% 감소하였으나 수입액은 5.6% 증가하였으며, 인도산 차는 2008-10년에 수입량은 1.6% 감소하였으나 수입액은 거의 20% 가까이 증가하여 큰 폭의 원가 상승을 보임
- 또한 폴란드, 르완다, 짐바브웨산 차는 최근 3년간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100%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, 남아프리카 공화국, 아르헨티나, 그리고 한국산 차는 50% 이상 수입규모가 감소함

■ 제품유형별 수입비중

- 제품유형별로 수입비중을 살펴보면, 홍차가 전체 수입액과 수입량의 95% 전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녹차의 비율은 5% 내외로 분석됨
- 홍차 중에서도 3kg 이상의 홍차가 수입액의 86%, 수입량의 92.4%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이와 같이 홍차의 비중이 높은 것은 영국 차의 역사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
- 영국이 19세기 케냐 및 인도를 식민지화 하면서 차가 다량으로 수입, 귀족과 같은 일부 상위계층에서만 즐기던 차가 대중들에게까지 널리 퍼지게 됨
- 이에 따라 홍차를 중심으로 차 문화가 형성됐고 반면, 녹차는 중국 문화가 유입되면서 함께 알려져 영국 소비자들에게 녹차는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홍차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음

< 제품유형별 수입비중 >



(자료: GTA)

■ 제품유형별 주요 수입 원산지

- 제품유형별로 주요 수입 원산지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
- 녹차의 경우, 제품이 3kg 이하 또는 이상인지에 관계없이 중국산 녹차가 가장 큰 규모로 수입되고 있음
- 3kg 이하의 경우 중국산 녹차가 수입액으로는 45%, 수입량으로는 32%를 차지하고 있으며 3kg 이상에서는 무려 67%와 68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
- 중국산 제품은 2008년 이후 100% 이상의 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
- 3kg 이하 제품에서는 중국 외에 독일, 미국, 일본 순으로 수입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며 한국산은 5천 달러 규모가 수입되어 29위에 오름
- 3kg 이상 제품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인도와 케냐가 2, 3 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이 6위, 그리고 한국은 6천 달러 규모로 수입, 26위를 기록함

< 제품유형별 주요 수입 원산지 >

(단위: 천 달러, 천 kg, %)

| 구분 | 국가명 | 2008 | | 2009 | | 2010 | | 2009-10년 성장률 | | 2008-10년 성장률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
| | | 수입액 | 수입량 | 수입액 | 수입량 | 수입액 | 수입량 | 수입액 | 수입량 | 수입액 | 수입량 |
| 녹차 (3kg 이하) | 전 체 | 3,861 | 389 | 3,697 | 645 | 8,076 | 1,294 | 118.4 | 100.6 | 109.2 | 232.6 |
| | 중 국 | 741 | 93 | 476 | 80 | 3,594 | 420 | 655.0 | 425.0 | 385.0 | 351.6 |
| | 독 일 | 515 | 75 | 900 | 222 | 1,141 | 355 | 26.8 | 59.9 | 121.6 | 373.3 |
| | 미 국 | 545 | 33 | 495 | 39 | 689 | 55 | 39.2 | 41.0 | 26.4 | 66.7 |
| | 일본 (4) | 314 | 38 | 246 | 26 | 480 | 39 | 95.1 | 50.0 | 52.9 | 2.6 |
| | 한국 (29) | 0 | 0 | 0 | 0 | 5 | 0 | | | | |
| 녹차 (3kg 이상) | 전 체 | 16,536 | 4,473 | 14,618 | 3,364 | 14,413 | 3,715 | -1.4 | 10.4 | -12.8 | -16.9 |
| | 중 국 | 10,988 | 2,482 | 9,054 | 1,871 | 9,654 | 2,543 | 6.6 | 35.9 | -12.1 | 2.5 |
| | 인 도 | 625 | 228 | 778 | 258 | 1,149 | 366 | 47.7 | 41.9 | 83.8 | 60.5 |
| | 케냐 | 905 | 499 | 836 | 183 | 815 | 151 | -2.5 | -17.5 | -9.9 | -69.7 |
| | 일본 (6) | 223 | 11 | 272 | 13 | 283 | 11 | 4.0 | -15.4 | 26.9 | 0.0 |
| | 한국 (26) | 14 | 0 | 3 | 1 | 6 | 0 | 100.0 | -100.0 | -57.1 | 0.0 |
| 홍차 (3kg 이하) | 전 체 | 26,537 | 6,559 | 32,073 | 7,851 | 35,635 | 6,423 | 11.1 | -18.2 | 34.3 | -2.1 |
| | 폴란드 | 3,213 | 408 | 3,420 | 527 | 7,199 | 1,427 | 110.5 | 170.8 | 124.1 | 249.8 |
| | 케냐 | 3,258 | 1,327 | 12,080 | 3,894 | 5,576 | 1,756 | -53.8 | -54.9 | 71.1 | 32.3 |
| | 아일랜드 | 2,473 | 450 | 1,556 | 1,160 | 5,429 | 950 | 248.9 | -18.1 | 119.5 | 111.1 |
| 홍차 (3kg 이상) | 전 체 | 317,131 | 146,170 | 318,629 | 136,005 | 362,756 | 138,391 | 13.8 | 1.8 | 14.4 | -5.3 |
| | 케냐 | 171,151 | 76,422 | 186,922 | 77,857 | 204,553 | 76,843 | 9.4 | -1.3 | 19.5 | 0.6 |
| | 인 도 | 51,053 | 20,891 | 49,362 | 18,503 | 60,742 | 20,331 | 23.1 | 9.9 | 19.0 | -2.7 |
| | 인도네시아 | 14,745 | 8,254 | 21,112 | 10,174 | 23,021 | 9,773 | 9.0 | -3.9 | 56.1 | 18.4 |
| | 중국 (5) | 9,900 | 5,076 | 9,178 | 4,735 | 10,713 | 4,776 | 16.7 | 0.9 | 8.2 | -5.9 |
| | 한국 (44) | 135 | 14 | 128 | 25 | 19 | 2 | -85.2 | -92.0 | -85.9 | -85.7 |

주: 위의 순서대로 HS 코드 090210, 090220, 090230, 090240로 검색한 결과임
(자료: GT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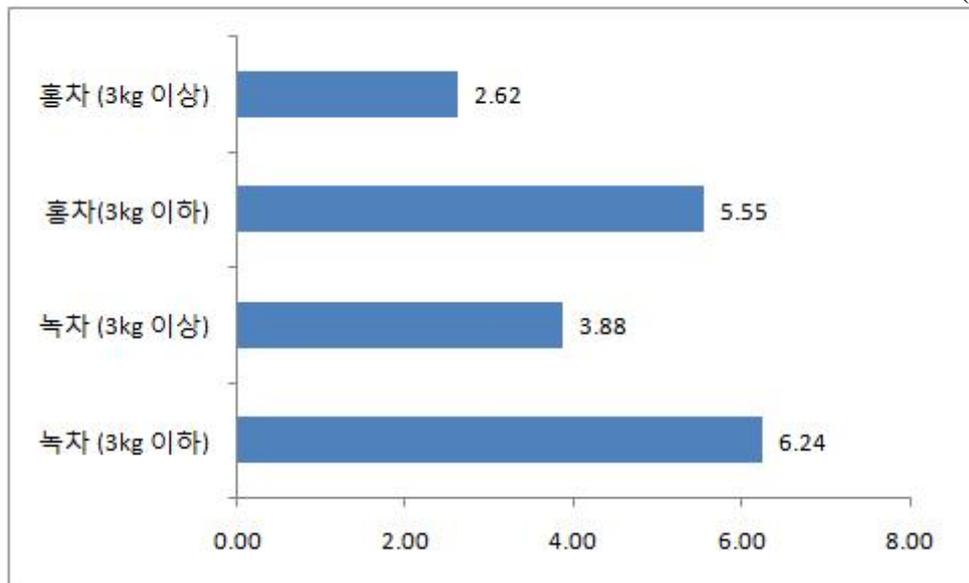
- 홍차 3kg 이하에서는 폴란드가 100-200% 수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케냐와 아일랜드산 홍차 수입규모가 2-3위를 차지함
- 한국산은 수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
- 홍차 3kg 이상에서는 케냐, 인도, 인도네시아산 제품이 가장 큰 규모로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산 홍차 수입이 5위, 한국산이 44위를 기록함
- 한국산 차는 홍차 3kg 이상 제품의 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8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, 2008년 13.5만 달러에서 2010년 2만 5천 달러로 80% 이상 감소함

■ 수입가격 비교

- 우선 제품유형별로 수입가격을 비교해 보면, 녹차 3kg 이하가 6.24달러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홍차 3kg 이하가 5.55달러로 분석됨
- 홍차와 녹차 모두 3kg 이상일 경우 수입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차보다는 녹차의 수입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음

< 제품유형별 수입가격 비교 >

(단위: 달러)



(자료: GTA)

- 제품유형별로 주요 원산지의 수입가격을 비교해 보면, 녹차 3kg 이하에서는 미국과 일본산 제품의 수입가격이 12달러 이상으로 나타나 전체 6.24달러의 거의 두 배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독일에서 수입된 제품은 수입가격이 3.21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
- 녹차 3kg 이상에서는 일본산 제품이 무려 25.73달러로 전체 가격 3.88달러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국산은 수입량이 적어 통계에 0달러로 기록되어 가격의 비교가 불가능함
- 한국이 가장 많이 영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차 종류인 홍차 3kg 이상의 경우, 주요 원산지의 수입가격이 2.00달러에서 3.00달러 사이에 속하는 반면, 한국산은 9.50달러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

< 제품유형별 원산지별 수입가격 비교 >

(단위: 달러)

| 구분 | 국가명 | 수입가격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녹차 (3kg이하) | 전 체 | 6.24 |
| | 중 국 | 8.56 |
| | 독 일 | 3.21 |
| | 미 국 | 12.53 |
| | 일 본 (4) | 12.31 |
| | 한 국 (29) | 0.00 |
| 녹차 (3kg이상) | 전 체 | 3.88 |
| | 중 국 | 3.80 |
| | 인 도 | 3.14 |
| | 케냐 | 5.40 |
| | 일 본 (6) | 25.73 |
| | 한 국 (26) | 0.00 |
| 홍차 (3kg이하) | 폴란드 | 5.04 |
| | 케냐 | 3.18 |
| | 아일랜드 | 5.71 |
| 홍차 (3kg이상) | 전 체 | 2.62 |
| | 케냐 | 2.66 |
| | 인 도 | 2.99 |
| | 인도네시아 | 2.36 |
| | 중 국 (5) | 2.24 |
| | 한 국 (44) | 9.50 |

(자료: GTA)

5. 관련 규정 및 수입검사

■ 통관거부 사례분석

-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유럽 내 차제품의 통관거부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영국으로의 차 수입과정에서 중요한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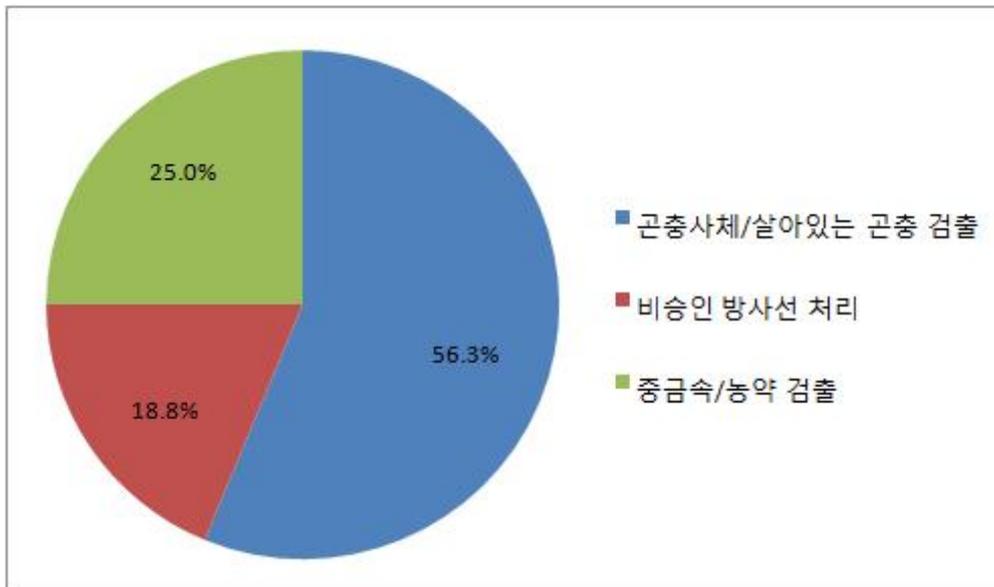
< 2008-10년 차제품 통관거부 사례 >

| 검역 국가 | 원산지 | 문제사유 | 후속조치 |
|-------|-----|---|------------|
| 이탈리아 | 인도 | 민트차, 레몬 홍차, 얼그레이 홍차에서 fenpropathrin (0.12; 0.29; 0.28 mg/kg - ppm) 검출 | 반송 또는 폐기조치 |
| 이탈리아 | 중국 | 녹차에서 lead (3 mg/kg - ppm) 검출 | 반송조치 |
| 핀란드 | 스위스 | 유기농 허브차에서 dimethomorph (0.069 mg/kg - ppm) 및 fenpropidin (0.045 mg/kg - ppm) 검출 | 물리적/화학적 처리 |
| 폴란드 | 중국 | 차에서 곤충 사체 검출 | 반송조치 |
| 폴란드 | 중국 | puerh fanning 차에서 곤충 사체 검출 | 반송조치 |
| 폴란드 | 중국 | puerh fanning 차에서 곤충 사체 검출 | 공식적 보류 |
| 폴란드 | 중국 | 차에서 곤충 사체 검출 | 반송조치 |
| 폴란드 | 중국 | puerh fanning 차에서 진드기 사체 검출 (51/100g) | 공식적 보류 |
| 폴란드 | 중국 | 녹차에서 곤충사체 및 살아있는 곤충 검출 | 반송 또는 폐기조치 |
| 폴란드 | 중국 | puerh fanning 차에서 곤충사체 및 살아있는 곤충 검출 | 폐기조치 |
| 루마니아 | 중국 | 차의 비승인 방사선 처리 | 반송조치 |
| 핀란드 | 중국 | 백차에서 Salmonella Singapore(present/25g) 및 faecalstreptococci(1600000CFU/g) 검출 | 반송조치 |
| 루마니아 | 중국 | 차의 비승인 방사선 처리 | 반송조치 |
| 루마니아 | 중국 | 차의 비승인 방사선 처리 | 폐기조치 |
| 폴란드 | 중국 | puerh tea 차에서 곤충 사체 검출 (58 /100g) | 반송조치 |
| 폴란드 | 중국 | puerh tea 차에서 곤충 사체 검출 | 반송조치 |

(자료: 유럽 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 RASFF 웹사이트)

- 통관거부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크게 곤충 사체 또는 살아있는 곤충 검출, 비승인 방사선 처리, 중금속/농약 검출의 3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음
- 이중 곤충 사체 또는 살아있는 곤충 검출이 50%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에서는 수출하기 이전에 제품에 곤충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와 확인이 요구됨
- 또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연합 지역에서는 차 제품에 대한 방사선 처리는 승인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품에 이와 같은 처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
- 중금속과 농약의 경우는 종류별로 최대 허용 잔여량을 설정해 놓고 있으므로, 차 제품에 대한 중금속과 농약 최대 허용 잔여량을 살펴보고자 함

< 통관거부 사례 유형별 비율 >



(자료: 유럽 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경고 시스템 RASFF 웹사이트)

■ 농약 최대 허용 잔여량 (MRLs)

- 유럽연합의 농약 데이터베이스에서 차 제품에 대한 농약별 최대 허용 잔여량을 검색한 결과, 400여 개의 농약에 대해 최대 허용 잔여량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함

< 차 제품의 농약별 최대 허용 잔여량 >

| 농약명 | MRLs (mg/kg) | 농약명 | MRLs (mg/kg) | 농약명 | MRLs (mg/kg)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,1-dichloro-2,2-bis | 0,1 | Diphenylamine | 0,05 | Mevinphos | 0,02 |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,2-dibromoethane | 0,02 | Diquat | 0,1 | Milbemectin | 0,1 |
| 1,2-dichloroethane | 0,02 | Disulfoton | 0,05 | Molinate | 0,1 |
| 1,3-Dichloropropene | 0,05 | Dithianon | 0,01 | Monocrotophos | 0,1 |
| 1-Naphthylacetamide | 0,05 | Dithiocarbamates | 0,1 | Monolinuron | 0,1 |
| 1-Naphthylacetic acid | 0,05 | Diuron | 0,1 | Monuron | 0,1 |
| 1-methylcyclopropene | 0,02 | Dodine | 0,2 | Myclobutanyl | 0,05 |
| 2,4 DB | 0,1 | Emamectin benzoate B1a | 0,02 | Napropamide | 0,05 |
| 2,4,5-T | 0,05 | Endrin | 0,01 | Nicosulfuron | 0,05 |
| 2,4-D | 0,1 | Epoxiconazole | 0,05 | Nitrofen | 0,02 |
| 2-phenylphenol | 0,1 | Ethalfuralin | 0,02 | Novaluron | 0,01 |
| Abamectin | 0,02 | Ethirimol | 0,05 | Orthosulfamuron | 0,01 |
| Acephate | 0,05 | Ethofumesate | 0,1 | Oryzalin | 0,02 |
| Acequinocyl | 0,02 | Ethoprophos | 0,02 | Oxadiargyl | 0,05 |
| Acetamiprid | 0,1 | Ethoxyquin | 0,05 | Oxadiazon | 0,05 |
| Acetochlor | 0,01 | Ethoxysulfuron | 0,1 | Oxadixyl | 0,02 |
| Acibenzolar-S-methyl | 0,05 | Ethylene oxide | 0,2 | Oxamyl | 0,02 |
| Aclonifen | 0,05 | Etofenprox | 0,01 | Oxasulfuron | 0,1 |
| Acrinathrin | 0,05 | Etoxazole | 0,05 | Oxycarboxin | 0,05 |
| Alachlor | 0,05 | Etridiazole | 0,05 | Oxydemeton-methyl | 0,05 |
| Aldrin and Dieldrin | 0,02 | Famoxadone | 0,05 | Oxyfluorfen | 0,05 |
| Ametoctradin | 0,01 | Fenamidone | 0,05 | Paclobutrazol | 0,02 |
| Amidosulfuron | 0,05 | Fenarimol | 0,05 | Paraquat | 0,05 |
| Aminopyralid | 0,02 | Fenazaquin | 10 | Parathion | 0,1 |
| Amisulbrom | 0,01 | Fenbuconazole | 0,05 | Parathion-methyl | 0,05 |
| Amitraz | 0,1 | Fenbutatin oxide | 0,1 | Penconazole | 0,1 |
| Amitrole | 0,02 | Fenchlorphos | 0,1 | Pencycuron | 0,05 |
| Anilazine | 0,05 | Fenhexamid | 0,1 | Pendimethalin | 0,1 |
| Aramite | 0,1 | Fenitrothion | 0,5 | Penoxsulam | 0,02 |
| Asulam | 0,05 | Fenoxaprop-P | 0,1 | Permethrin | 0,1 |
| Atrazine | 0,1 | Fenoxycarb | 0,05 | Pethoxamid | 0,02 |
| Azadirachtin | 0,01 | Fenpropathrin | 2 | Phenmedipham | 0,1 |
| Azimsulfuron | 0,1 | Fenpropidin | 0,05 | Phenothrin | 0,05 |
| Azinphos-ethyl | 0,05 | Fenpropimorph | 0,1 | Phorate | 0,1 |
| Azinphos-methyl | 0,1 | Fenpyroximate | 0,1 | Phosalone | 0,1 |
| Azocyclotin & Cyhexatin | 0,1 | Fentin acetate | 0,1 | Phosmet | 0,1 |
| Azoxystrobin | 0,1 | Fentin hydroxide | 0,1 | Phosphamidon | 0,02 |
| Barban | 0,1 | Fenvalerate & Esfenvalerate | 0,05 | Phosphines & phosphides | 0,05 |
| Beflubutamid | 0,1 | Fenvalerate & Esfenvalerate | 0,05 | Phoxim | 0,1 |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Benalaxyl | 0,1 | Fipronil | 0,005 | Picloram | 0,01 |
| Benfluralin | 0,05 | Flazasulfuron | 0,02 | Picolinafen | 0,1 |
| Benfuracarb | 0,1 | Flonicamid | 0,05 | Picoxystrobin | 0,1 |
| Bentazone | 0,1 | Florasulam | 0,1 | Pinoxaden | 0,05 |
| Benthiavalicarb | 0,01 | Fluazifop-P-butyl | 0,1 | Pirimicarb | 0,05 |
| Bifenazate | 0,02 | Fluazinam | 0,05 | Pirimiphos-methyl | 0,05 |
| Bifenox | 0,05 | Flubendiamide | 0,02 | Prochloraz | 0,1 |
| Bifenthrin | 5 | Flucyclohexuron | 0,05 | Procymidone | 0,1 |
| Binapacryl | 0,1 | Flucythrinate | 0,1 | Profenofos | 0,1 |
| Biphenyl | 0,05 | Fludioxonil | 0,05 | Profoxydim | 0,1 |
| Bitertanol | 0,1 | Flufenacet | 0,05 | Prohexadione | 0,1 |
| Bixafen | 0,01 | Flufenoxuron | 15 | Propachlor | 0,05 |
| Boscalid | 0,5 | Flufenzin | 0,05 | Propamocarb | 0,2 |
| Bromide ion | 70 | Flumioxazine | 0,1 | Propanil | 0,1 |
| Bromophos-ethyl | 0,1 | Fluometuron | 0,02 | Propaquizafop | 0,05 |
| Bromopropylate | 0,1 | Fluopicolide | 0,02 | Propargite | 5 |
| Bromoxynil | 0,1 | Fluoride ion | 350 | Propham | 0,1 |
| Bromuconazole | 0,05 | Fluoroglycofene | 0,02 | Propiconazole | 0,1 |
| Bupirimate | 0,05 | Fluoxastrobin | 0,1 | Propineb | 0,1 |
| Buprofezin | 0,05 | Flupyrsulfuron-methyl | 0,05 | Propisochlor | 0,01 |
| Butralin | 0,02 | Fluquinconazole | 0,05 | Propoxur | 0,1 |
| Butylate | 0,05 | Flurochloridone | 0,1 | Propoxycarbazone | 0,05 |
| Camphechlor | 0,1 | Fluroxypyr | 0,1 | Propyzamide | 0,05 |
| Captafol | 0,1 | Flurprimidole | 0,02 | Proquinazid | 0,05 |
| Carbaryl | 0,1 | Flurtamone | 0,05 | Prosulfocarb | 0,05 |
| Carbetamide | 0,05 | Flusilazole | 0,05 | Prosulfuron | 0,1 |
| Carbofuran | 0,05 | Flutolanil | 0,05 | Prothioconazole | 0,02 |
| Carbosulfan | 0,1 | Flutriafol | 0,05 | Pymetrozine | 0,1 |
| Carboxin | 0,05 | Folpet | 0,05 | Pyraclostrobin | 0,05 |
| Carfentrazone-ethyl | 0,02 | Foramsulfuron | 0,05 | Pyraflufen-ethyl | 0,05 |
| Cartap | 0,1 | Forchlorfenuron | 0,05 | Pyrasulfutole | 0,02 |
| Chlorantraniliprole (DPX E-2Y45) | 0,02 | Formetanate | 0,05 | Pyrazophos | 0,1 |
| Chlorbenside | 0,1 | Formothion | 0,05 | Pyrethrins | 0,5 |
| Chlorbufam | 0,1 | Fosetyl-Al | 5 | Pyridaben | 0,05 |
| Chlordane | 0,02 | Fosthiazate | 0,05 | Pyridalyl | 0,02 |
| Chlordecone | 0,02 | Fuberidazole | 0,05 | Pyridate | 0,1 |
| Chlorfenapyr | 50 | Furathiocarb | 0,1 | Pyrimethanil | 0,1 |
| Chlorfenson | 0,1 | Furfural | 1 | Pyriproxyfen | 0,05 |
| Chloridazon | 0,1 | Gibberellic acid | 5 | Pyroxsulam | 0,02 |
| Chlormequat | 0,1 | Glufosinate-ammonium | 0,1 | Quinalphos | 0,1 |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Chlorobenzilate | 0,1 | Glyphosate | 2 | Quinclorac | 0,1 |
| Chloropicrin | 0,02 | Guazatine | 0,1 | Quinmerac | 0,1 |
| Chlorothalonil | 0,1 | Halosulfuron methyl | 0,02 | Quinoxifen | 0,05 |
| Chlorotoluron | 0,05 | Haloxifop including haloxifop-R | 0,05 | Quintozene | 0,05 |
| Chloroxuron | 0,1 | Heptachlor | 0,02 | Quizalofop, incl. quizalofop-P | 0,05 |
| Chlorpropham | 0,1 | Hexachlorobenzene | 0,02 | Resmethrin | 0,2 |
| Chlorpyrifos | 0,1 | Hexachlorocyclohexane | 0,02 | Rimsulfuron | 0,1 |
| Chlorpyrifos-methyl | 0,1 | Hexaconazole | 0,05 | Rotenone | 0,02 |
| Chlorsulfuron | 0,05 | Hexythiazox | 0,05 | Silthiofam | 0,1 |
| Chlorthal-dimethyl | 0,01 | Hymexazol | 0,05 | Spinetoram (XDE-175) | 0,1 |
| Chlorthiamid | 0,05 | Imazalil | 0,1 | Spinosad | 0,05 |
| Chlorzolinate | 0,1 | Imazamox | 0,1 | Spirodiclofen | 0,05 |
| Chromafenozide | 0,02 | Imazaquin | 0,05 | Spiromesifen | 0,02 |
| Cinidon-ethyl | 0,1 | Imazosulfuron | 0,02 | Spirotetramat | 0,1 |
| Clethodim | 0,1 | Imidacloprid | 0,05 | Spiroxamine | 0,1 |
| Clodinafop & S-isomers | 0,05 | Indoxacarb | 0,05 | Sulcotrione | 0,05 |
| Clofentezine | 0,05 | Iodosulfuron-methyl | 0,05 | Sulfosulfuron | 0,1 |
| Clomazone | 0,02 | Ioxynil | 0,1 | Sulfuryl fluoride | 0,02 |
| Clopyralid | 0,5 | Ipconazole | 0,02 | Sulphur | 0 |
| Clothianidin | 0,05 | Iprodione | 0,1 | TEPP | 0,02 |
| Copper compounds (Copper) | 40 | Iprovalicarb | 0,1 | Tau-Fluvalinate | 0,01 |
| Cyanamide | 0,1 | Isoproturon | 0,1 | Tebuconazole | 0,05 |
| Cyazofamid | 0,02 | Isopyrazam | 0,01 | Tebufenozide | 0,1 |
| Cyclanilide | 0,1 | Isoxaben | 0,02 | Tebufenpyrad | 0,1 |
| Cycloxydim | 0,05 | Isoxaflutole | 0,1 | Tecnazene | 0,1 |
| Cyflufenamid | 0,05 | Kresoxim-methyl | 0,1 | Teflubenzuron | 0,05 |
| Cyfluthrin | 0,1 | Lactofen | 0,02 | Tefluthrin | 0,05 |
| Cyhalofop-butyl | 0,05 | Lambda-Cyhalothrin | 1 | Tembotrione | 0,05 |
| Cymoxanil | 0,05 | Lenacil | 0,1 | Tepraloxym | 0,1 |
| Cypermethrin | 0,5 | Lindane | 0,05 | Terbufos | 0,01 |
| Cyproconazole | 0,05 | Linuron | 0,1 | Terbutylazine | 0,05 |
| Cyprodinil | 0,05 | Lufenuron | 0,02 | Tetraconazole | 0,02 |
| DDT | 0,2 | MCPA & MCPB | 0,1 | Thiabendazole | 0,1 |
| DNOC | 0,1 | Malathion | 0,5 | Thiacloprid | 10 |
| Dalapon | 0,1 | Maleic hydrazide | 0,5 | Thiamethoxam | 0,1 |
| Daminozide | 0,1 | Mandipropamid | 0,02 | Thifensulfuron-methyl | 0,1 |
| Dazomet | 0,02 | Mecarbam | 0,1 | Thiobencarb | 0,1 |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Deltamethrin (cis-deltamethrin) | 5 | Mecoprop | 0,1 | Thiram | 0,2 |
| Desmedipham | 0,1 | Mepanipyrim | 0,02 | Tolclofos-methyl | 0,1 |
| Diallate | 0,1 | Mepiquat | 0,1 | Tolyfluanid | 0,1 |
| Diazinon | 0,02 | Mepronil | 0,1 | Topramezone | 0,02 |
| Dicamba | 0,05 | Meptyldinocap | 0,1 | Tralkoxydim | 0,05 |
| Dichlobenil | 0,05 | Mercury compounds | 0,02 | Tri-allate | 0,1 |
| Dichlorprop | 0,1 | Mesosulfuron-methyl | 0,02 | Triadimefon & triadimenol | 0,2 |
| Dichlorvos | 0,02 | Mesotrione | 0,1 | Triazophos | 0,02 |
| Diclofop | 0,05 | Metaflumizone | 0,1 | Tribenuron-methyl | 0,02 |
| Dicloran | 0,01 | Metalaxyl & metalaxyl-M | 0,1 | Trichlorfon | 0,1 |
| Dicofol | 20 | Metaldehyde | 0,1 | Triclopyr | 0,1 |
| Diethofencarb | 0,05 | Metamitron | 0,1 | Tricyclazole | 0,05 |
| Difenoconazole | 0,05 | Metazachlor | 0,2 | Tridemorph | 20 |
| Diflubenzuron | 0,1 | Metconazole | 0,02 | Trifloxystrobin | 0,05 |
| Diflufenican | 0,05 | Methacrifos | 0,1 | Triflumizole | 0,1 |
| Dimethachlor | 0,02 | Methamidophos | 0,02 | Triflumuron | 0,05 |
| Dimethenamid-p | 0,02 | Methiocarb | 0,1 | Trifluralin | 0,1 |
| Dimethipin | 0,1 | Metholachlor & metholachlor-S | 0,1 | Triflusulfuron | 0,05 |
| Dimethoate | 0,05 | Methomyl & Thiodicarb | 0,1 | Trimethyl-sulfonium cation | 0,05 |
| Dimethomorph | 0,05 | Methoprene | 0,05 | Trinexapac | 0,05 |
| Dimoxystrobin | 0,01 | Methoxychlor | 0,1 | Tritosulfuron | 0,02 |
| Diniconazole | 0,05 | Methoxyfenozide | 0,05 | Valifenalate | 0,02 |
| Dinocap | 0,1 | Metosulam | 0,01 | Vinclozolin | 0,1 |
| Dinoseb | 0,1 | Metrafenone | 0,05 | Ziram | 0,2 |
| Dinoterb | 0,1 | Metribuzin | 0,1 | Zoxamide | 0,05 |
| Dioxathion | 0,1 | Metsulfuron-methyl | 0,1 | | |

(자료: 유럽연합 농약 데이터베이스, EU Pesticide Database)

■ FTA 체결에 따른 관세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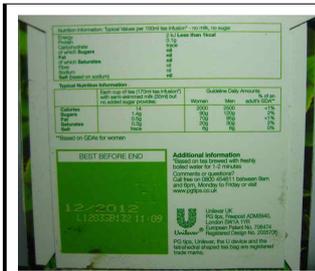
- FTA 체결 전에는 차 종류 중 3킬로그램 미만의 녹차에만 3.2%의 관세율이 적용되었고 다른 종류의 차 제품은 무관세였음
- 따라서 차 제품의 경우, FTA 체결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

■ 라벨링

- 일반 제품의 라벨의 의무표기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음
 - 제품이름
 - 성분 및 성분함량 또는 성분 카테고리: 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, 성분 카테고리 및 특정 성분 순으로 표기
 - 알레르기 유발 성분
 - 유효기간 및 보관방법
 - 제조회사 이름 및 주소 또는 유럽 연합 내 수입/판매업자
 - Net quantity
 - 영양성분
 - 원산지 (원료의 일부가 제품의 원산지와 달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을 경우)
- 실제 라벨링 예

| 측면 1 | 측면 2 | 측면 3 | 측면 4 |
|---|---|--|---|
|  |  |  |  |
| 제품명 및 개수 | Rainforest Alliance Certification에 대한 설명 | 신제품 | 제품 특징 및 중량 |

바닥



Nutrition Information: Typical Values per 100ml tea infusion* - no sugar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Energy | 2 kJ Less than 2 kJ |
| Protein | 0.1g |
| Carbohydrate of which Sugars | trace |
| Fat of which Saturates | nil |
| Fibre | nil |
| Sodium | nil |
| Salt (based on sodium) | nil |

Typical Nutrition Information

| | |
|--|-------|
| Each cup of tea (170ml tea infusion*) with semi-skimmed milk (30ml) but no added sugar provides: | |
| Calories | 14 |
| Sugars | 1.4g |
| Fat | 0.5g |
| Saturates | 0.3g |
| Salt | trace |

영양정보,
유통기한, 제조사

영양정보 표기시
Carbohydrate와 Fat의 경우,
- of which sugars
- of which saturates로
세부 정보 제공 필수

기타 영양정보
- 칼로리, 설탕, 지방, 포화지방, 염분 함량 표기

6. 한국산 수출확대 방안

■ 차 문화 수출을 통한 제품의 수출

- 영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차 문화를 중요시 하고 있음
- 그래서 영국 제품들을 보면 제품 소개에 'classic', 'traditional', 'speciality'라는 단어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차를 전문으로 전통을 쌓아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음
- 따라서 영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차를 보다 중국산 차와 다른 보다 고급스럽고, 고품질의 차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차 문화를 보급함과 동시에 차 제품을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함
- 런던에 위치한 보로마켓에서 한국 차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, 한국산 다기 세트와 함께 한국 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라벨에 얼마나 특별한 곳에서 생산이 되고 (famous tea mountain, Chiri-san, 지리산), 어떻게 수확됐는지 (almost entirely hand-made), 누가 수확했는지 (Kim's family)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넣음으로써 보다 고급스럽고 신비로운 동양의 차 제품으로 마케팅하고 있음
- 런던에 위치한 재영 한국 문화원과 같은 기관을 통해 한국의 차 문화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고 차 문화를 보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

< 보로마켓 내 한국 차 판매 >

| | | |
|---|--|---|
|  |  |  |
| <p>다기세트 판매</p> | <p>한국 차 제품</p> | <p>제품에 대한 설명</p> |

■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춘 신제품 개발

- 앞에서 살펴본 영국의 차 신제품과 홍차 외에 녹차 또는 과일/허브 차를 마시는 소비자들의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단지 녹차가 아니라 녹차에 영국 소비자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선호하는 여러 가지 향 또는 맛이 가미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야 함
- 예를 들어, 단맛을 선호하는 영국 소비자들을 위해 녹차에 꿀을 넣은 제품이라든지, 후각이 민감한 영국 소비자들을 감안해 녹차에 레몬, 생강 등의 다양한 천연 재료를 가미하여 향이 첨가된 차를 개발한다면 쉽게 현지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음

■ '건강', '유기농', 그리고 '편리성'

- 영국 차 시장에서의 화두는 '건강'과 '유기농'으로, 홍차가 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차와 과일/허브차가 최근 급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현지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 이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임
- 그러나 영국 소비자들은 아무리 건강에 좋고 유기농이라고 하더라도 마시는데 편리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
- 또한 홍차 이외 다른 과일/허브차 또는 녹차를 마시는 이유는 건강, 구체적으로는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섭취를 줄이기 위함과 정신적 이완과 같은 정신적 건강을 위함임
- 이에 따라 영국의 대표적인 차 제품의 패키지에 제품 특성에 관해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단어를 꼽는다면 'refreshing', 'relax' 그리고 'aroma'임
- 제품 개발시와 라벨링에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적을 때 이와 같은 사항들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음
- 한편, 한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생강차, 쌍화차와 같은 분말형태의 즉석 차의 경우, 편리성은 뛰어나지만 현지 소비자들은 인공 또는 가공적인 제품이라고 인식하여 소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
- 따라서 제품의 편리성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제품 소비를 장려하면서도 제품의 품질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티백 형태로 제품을 제조하는 것임

■ 소용량 제품

- 영국 소비자들에게 홍차는 익숙하기 때문에 티백 제품의 경우 티백이 50-100개 이상 들어 있는 대용량 사이즈의 제품도 판매되고 있음
- 그러나 홍차 외 다른 티백 제품들은 적으면 16개에서 25개 들입의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로만 판매되고 있음
- 이는 소비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할 때 지각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임

■ 케이터링 업체를 이용한 수출

- 영국의 대표적인 커피숍 체인으로는 Costa와 Pret A Manager가 있으며 미국계 업체인 Starbucks, 이탈리아계 Cafe Nero도 전역에 걸쳐 많은 매장수를 가지고 있음
- 따라서 대규모 체인 업체를 통하여 수출을 타진, 기존 아시아 식품점에서 벗어나 유통영역을 넓히는 노력이 요구됨

■ 박람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

- 수입 및 공급업체를 발굴할 수 있는 영국의 식음료 관련 박람회로는 짝수년 3월에 Birmingham NEC에서 개최되는 Food & Drink Expo와 홀수년 3월에 London ExCel에서 개최되는 International Food & Drink Event 이 있음

| | Food and Drink Expo | International Food & Drink Event |
|------|--|--|
| 개최시기 | 짝수 연도 3월 (2012년 3월 25-27일) | 홀수 연도 3월 (2013년 3월 17-20일) |
| 장 소 | Birmingham NEC | London ExCel |
| 관련정보 | www.foodanddrinkexpo.co.uk | www.ife.co.uk |

■ 산업잡지를 통한 회사 및 제품 광고

- 관련 산업 잡지에 광고를 하여 현지 음료 전문 수입업체 또는 공급업체에게 회사

및 제품을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음

- 영국의 식음료 전문 산업 잡지로는 the Grocer (www.thegrocer.co.uk)와 Food & Drink International (www.fdiforum.net)이 있음

7. 참고자료

■ 관련 협회 및 정부기관

Defra (영국 농식품부에 해당)
Nobel House
17 Smith Square
London
SW1P 3JR
Tel: +44 (0)207 238 6951
www.defra.gov.uk
defra.helpline@defra.gsi.gov.uk

International Tea Committee Ltd
1 Carleton House Terrace
London, SW1Y 5DB
Telephone: 020-7839 5090
Fax: 020-7839 5052
<http://www.inttea.com>
info@inttea.com

Food Standard Agency (식품 표준청)
Aviation House
125 Kingsway
London WC2B 6NH
Tel: +44 (0)20 7276 8000
www.food.gov.uk
helpline@foodstandards.gsi.gov.uk

United Kingdom Tea Council
9 The Courtyard
Gowan Avenue
London, SW6 6RH
Telephone: 020-7371 7787
Fax: 020-7371 7958
<http://www.tea.co.uk>
info@teacouncil.co.uk

■ 주요 차 회사

Cafédirect PLC/Teadirect
City Cloisters
Suite B2
196 Old Street
London, EC1V 9FR
Telephone: 020-7490 9520
Fax: 020-7490 9521
info@cafedirect.co.uk
<http://www.cafedirect.co.uk>

R Twining and Company Ltd/
Jacksons of Piccadilly Ltd
Walworth Industrial Estate
South Way
Andover

Clipper Teas Ltd
Unit 4
Beaminster Business Park
Broadwindsor Road
Beaminster
Dorset, DT8 3PR
Telephone: 01308-863 344
Fax: 01308-863 847
<http://www.clipper-teas.com>

Ty.phoo Tea Ltd
PO Box 8
Pasture Road
Moreton
Wirral

Hampshire, SP10 5AQ
Telephone: 01264-334 477
Fax: 01264-337 774
<http://www.twinings.com>
<http://www.jacksons-of-piccadilly.com>

Merseyside, CH46 8XF
Telephone: 0151-522 4000
<http://www.typhoo.com>

Tetley GB Ltd
325 Oldfield Lane North
Greenford
Middlesex, UB6 0AZ
Telephone: 020-8338 4000
Fax: 020-8338 4414
<http://www.tetley.co.uk>
<http://www.teaexperts.co.uk>